

전원속의 내집

2015 | vol 200
10

www.uujj.co.kr



HOUSE | GARDEN | INTERIOR | LIVING



Special Theme

200호 특집 ·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

- + 세 아이를 위한 양평 오솔집 + 매력적인 실링팬
- + 30살 단독주택 고치기 대작전, 더심하우스
- + 이케아 싱크대, 탐나세요?

Cover House

LAKE HOUSE

- + 3대가 모여사는 고리집
- + 스틸하우스의 재발견



〈전원속의 내집〉
200호 기념 이벤트

gift

총 3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the 2000 ISSUE

중정이 품어낸 세대 간의 조화

삼대가 모여 사는 단층 고리집

가족이 함께 사는 즐거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매일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집. 한적한 동네 안에 자리 잡은 '고리집' 이야기다.



01 140평 땅에 단층으로 넓게 펼쳐진 집의 전면. 중정을 둘러싸고 삼대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 보금자리다.

House Plan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 대지면적 472㎡(142.78평) | 건물규모 지상 1층, 다락층 | 건축면적 252.35㎡(76.33평) | 연면적 323.36㎡(97.82평) | 건폐율 53.46% | 용적률 53.46% | 주차대수 4대 | 최고높이 6.9m | 공법 기초 - 철근콘크리트 기초, 지상 - 에코셀 공법 | 구조재 벽 - 외벽 2×6 SPF / 지붕 - 2×10 SPF | 지붕마감재 아스팔트싱글 | 단열재 에코셀단열(양거룻 + 셀룰로오스폼) 140mm, 비드법보온판 2종3호 100mm | 외벽마감재 스티코 | 창호재 알파칸 시스템창호 3중유리 | 설계 (주)GIP 031-888-5661 | 시공 (주)GIP 에코셀홈 031-888-5660 www.ecocellhome.com



노부모 세대 | 별이 가장 좋은 남향에 노부부가 편히 쉴 수 있는 침실이 자리한다.



건축주 세대 | 세 아이를 키우는 건축주는 아이들 방과 가까운 곳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서재를 만들었다.



누나 세대 | 집의 북쪽 면에 자리하지만, 중정 덕분에 소거실은 태양빛을 풍성히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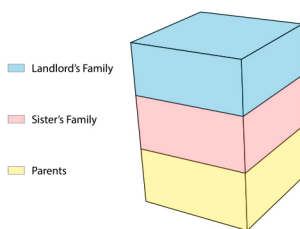
서울과 과천의 경계에는 오래된 집들이 낮은 돌담을 마주하고 웅기 좋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 재개발 제한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이 동네에, 산뜻한 흰색 외관에 중정을 품은 널찍한 주택이 들어섰다. 단층 고리집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던 건축주와 그의 누나는, 가족이 모두 한 집에 모여 사는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촌지간인 아이들 사이도 친해 어릴 때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였다. 원래 살던 부모님의 집을 허물고 3층 집을 지어 각 층에 한 세대씩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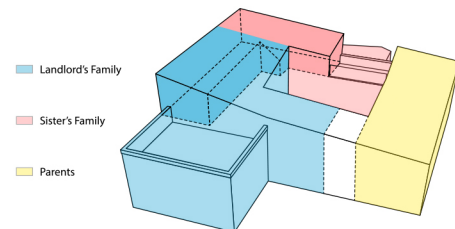
가 사는 것을 생각했던 건축주와 누나는, 우연히 본 '중정이 있는 집' 사진에 감동해 마음을 바꿨다.

“어릴 때 뛰놀던 옛집의 기억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짓기로 했어요. 시선이 머무는 지상 층에서 마당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중정을 만들고, 각 실을 배치하는 디자인이었죠.”

잡지를 통해 만난 GIP와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 가며 집은 형태를 잡아갔다. 각 세대가 각자의 공간을 가진 채,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여서 따로 또 같이 사는 구성, 가족의 생활 방식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디자인이 탄생했다.



일반적인 신축



세대가 서로 연결되는 단층 고리집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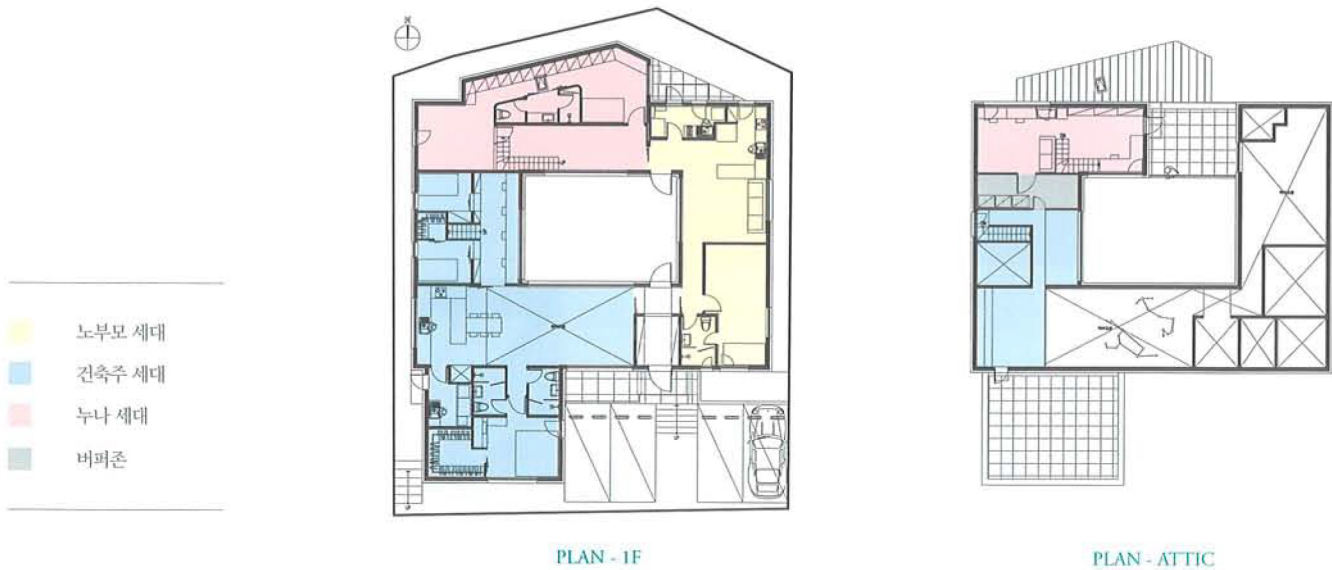
02 가운데 마당은 집의 중심 공간이다. 3세대가 이 공간을 공유하며 용기종기 모여 앉은 모양새다.

03 위에서 내려다본 주택의 지붕선, 중정이 이뉘하다.

04 05 마당을 향해 시선을 낸 노부모의 거실과 주방. 우측으로 보이는 누나 세대로 연결되는 동선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리할 수 있게끔 미닫이문을 설치했다.



04 05



이 집은 세 가족이 같은 현관문을 쓴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우로 갈라진 갈림길에서 왼쪽은 건축주 부부 세대로 향하는 문이, 오른쪽은 노부모와 누나 세대로 향하는 문이 있다. 이때부터 미로탐험이 시작된다.

집은 같은 현관, 같은 중정을 공유하고 집끼리 통하는 문을 모두 열면 완벽하게 순환하는 하나의 연결 동선이 생긴다. 그래서 집의 이름도 연결된다는 뜻의 '고리집'이다. 양쪽 집은 다락에서 만나는데, 이곳 다락은 건축주 세대의 어린 세 자녀와 누나 세대 두 딸의 '만남의 장소'가 되곤 한다. 몇 번을 되풀이도 '꼭 만들어 달라'고 한 아이들의 강력한 주장 덕분에 만들어진 통로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의 확보이다. 세 집의 중앙공간인 중정은 각자의 집에서 모두 보이지만, 창의 높이를 모두 달리해 마주 보일 염려가 없다. 가족이 모이거나 소통하는 공간인 거실과 주방은 중정 가까이 전면부에 배치하고, 안쪽 내밀한 공간에는 침실과 서재, 욕실 등을 두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거실에서 중정을 감상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태양 고도를 계산해 중정으로 쏟아지는 일사량을 최대한 확보했다. 덕분에 집 안 구석구석 빛이 잘 들어 늘 밝다.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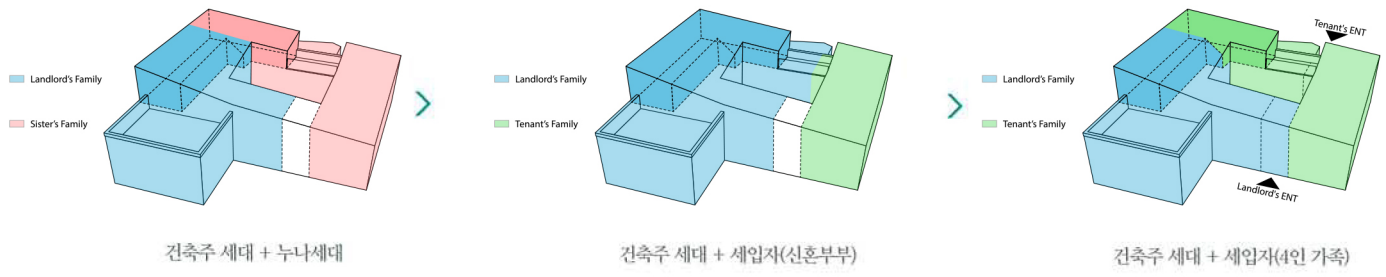
06 현관과 바로 면한, 별 좋은 남쪽에는 건축주 세대의 거실이 넓게 펼쳐진다. 반대쪽은 노부모의 침실이, 그 안쪽으로는 누나 세대의 거실이 자리한다.

07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서재를 아이들 방과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은 필요할 때에만 꺼낼 수 있도록 아래 두 단만 이동형으로 제작했다.

08 세 아이의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거실 조명을 계획하고, 복층의 아이 놀이 공간까지 트인 개방감 있는 거실을 만들었다.

09 누나 세대와 연결되는 다락에는 복층 놀이 공간과 평상으로 만든 만화방이 자리한다.





집은 미래에 대응하는 건축적인 해결책도 갖췄다.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라 10년 후, 두 세대만이 사는 모습도 불편함 없이 그렸고,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게끔 구성했다.

“가족이 나이 들어가고, 구성원이 변하면 집도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30년을 고려해 설계한 집은, 가변형 평면을 구성해 상황에 따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따로 떨어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도록 했어요.”

설계를 맡은 GIP 이장욱 건축가는 건축주의 요구와 바람을

고민하여 어떻게 공간을 나누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은 집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3세대 간 영역은 세대원이 나이를 먹고 자녀들이 분가하면서 다양한 평면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일례로 다락 사이에 수납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은 나중에 집을 두 채로 분리할 때의 버퍼존(Buffer-Zone)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 북쪽에 현관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해 나중에 세입자와의 동선을 분리할 수도 있게 했다. 설계부터 고민된 치밀한 가변형 평면 덕에 30년 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집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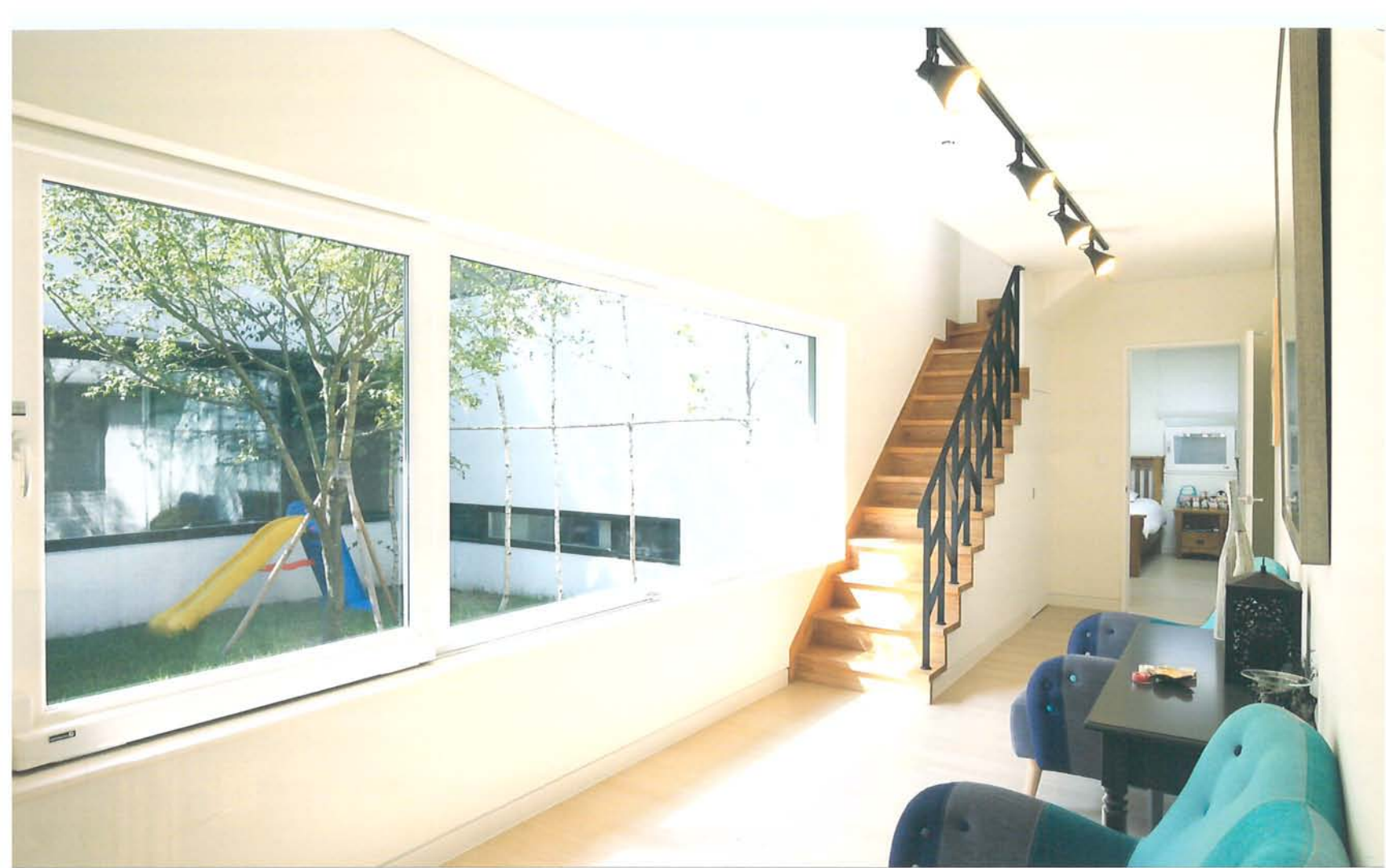
10 다락의 미술 작업실에는 낮은 눈높이에 창을 내어 증정을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옥상 테라스를 만들었다. 건축주 세대와 연결되는 문이 다락 한쪽에 나 있다.

11 엄마와 두 딸의 사이가 돈독해 방 사이에 문도 없길 바랐다. 방 사이에는 7m에 달하는 드레스룸과 욕실을 구성해 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실을 만들었다.

12 중정쪽으로 작은 소거실을 내고, 밝은 계단실을 갖는 누나 세대

13 흰색으로 마감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주택 외관에 포인트를 주고자, 현관을 눈에 띄게 디자인하고 야간에 불을 밝히는 조명등을 설치해 화사함을 더했다.





10 12
11 13

온 가족이 모여 산다고 할 때 들려오는 주변의 우려는 이 집에서는 남의 이야기다. 시시때때로 모이고 흩어지며 하루의 일상을 나누는, 모여 사는 즐거움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락의 만화방과 미술 작업실 사이에 늘 열려있는 문은 가족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열려 있지만 또 필요하다면 문을 닫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집이다. ▲

Interior Source

내벽	대우 무지 실크벽지
조명	조용주조명
바닥	LG 강마루
계단	에쉬 집성목
주방	한샘 EURO
수전 및 도기	대림
도어	영림도어
타일	국산 및 수입타일

